

Youngeun News

동행

9월

2025년 469호



사진 : 초등부여름성경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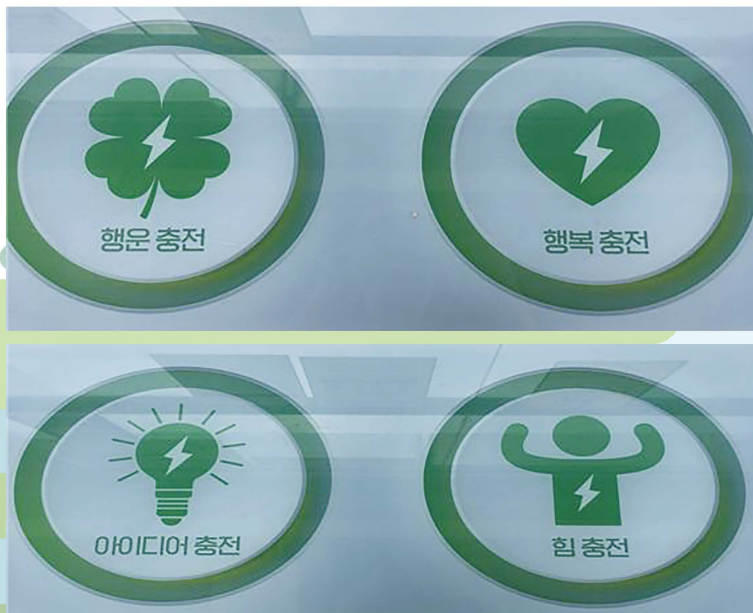
 **영은교회**
www.youngeun.or.kr

color 2025 영은, 색을 입히다





사람도 휴대전화처럼 배터리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의 배터리가 10%도 안 남았을 때가 있죠.
그럴 땐 억지로 버티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충전시켜 보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넉넉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3)

〈글 · 사진 : 서현이 기자〉

영은교회 창립 주후 1960. 04. 24



월간 동행 영은 홍보부

1984년 4월 27일 창간

발행일 제 469호 / 2025. 9. 7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61 영은교회

전화. 02-2676-7171~2

월간 동행 E-mail, yemagazine@naver.com

발행인 이승구 목사

지도목사 최광주 목사

편집인 김석진 장로

편집차장 김창원 안수집사
서선이 권사

편집 서선이 김경원B 윤정림

기자 김명희C 서현이 이숙경

사진기자 허영준

디자인 디자인 샘

월간 동행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과
간증을 나누는 교회 소식지입니다.

CONTENTS

- 02 그림이 있는 풍경
“충전” / 서현이 기자
- 04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파송 / 이승구 담임목사
- 07 믿고 알고 알고 믿고
무엇이 다른가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한진구 목사
- 08 그리스도인의 향기
제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누며 살겠습니다 / 감바트르 성도
- 09 즐거운 교회생활
교회언어 바로잡기 / 최광주 목사
- 10 신앙의 유산
삶의 전부가 된 영은교회 / 한영기 은퇴권사
- 12 웹진 동행
영은교회, 여름 커피나눔 / 신요한 목사
한국교회역사 그랜드투어
- 16 영은소식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 장시우 어린이
소년부 여름성경학교 / 송지후 어린이
중등부 여름수련회 / 오한결 학생
고등부 여름수련회 / 광영규 학생
여름찬양캠프 / 양승아 어린이
꿈자람부 어린이 가정 심방 / 김아름 집사
청년1부 수련회 / 유선우 (청년1부)
청년2부 수련회 / 이진성 (청년2부)
제3회 영은디아스포라, 영은설악센터에서 열려 / 김명희 기자
유스비전 30기 <알록달록>의 유럽비전 여행기
- 26 즐거운 교회생활
교회언어 바로잡기 / 최광주 목사
- 27 빼딱하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 이숙경 기자
- 28 교회안내

2025년 「월간 동행」 사역자 모집

살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 하심을 생생한 글과 사진으로
남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월간 동행과 함께 동역하실
사역자를 기다립니다.

「월간 동행」에서는 성도님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영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거나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면
월간 동행 이메일(yemagazine@naver.com)로 사진과 함께
보내주세요.

편집회의 검토 후 월간 동행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파송 (창세기 45:5~8)



글 | 이승구 담임목사

■ 요셉의 눈물과 고백

유다의 탄원을 들은 요셉은 눈물을 더 이상 감출 수 없었습니다(창 45:2). 요셉의 울음은 단순히 눈물 흘리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수년간 억눌러 온 감정의 분출입니다.

오랜 세월 형들에게 버림받은 아픔, 외국에서의 억울함, 아버지를 그리워하던 마음, 동생 베나민을 향한 그리움까지 복합적으로 폭발한 것입니다.

특히 유다의 변화는 요셉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한때 요셉을 팔았지만, 이제는 베나민을 대신해 자신이 희생하겠다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품위나 권위보다도 형제들과 아버지를 향한 진실한 감정에서 표출된 요셉의 울음은 바로의 궁중 전체를 울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창 45:3)

요셉이 살아 있고 심지어 애굽 총리라는 지위로 형들 앞에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형제들은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놀라다’로 번역된 말은 전쟁터에서 적에게 포위 당한 군인이 공포로 얼어붙

은 상태를 함축합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충격이 한꺼번에 밀려온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더 이상 야콥을 ‘너희 아버지’로 칭하지 않고 ‘내 아버지’로 부릅니다.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복원입니다. 지금까지 형제들과 거리를 두며 시험하던 요셉이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바로 형들이 팔았던 아우 요셉임을 다시 한번 말하고(창45:4), 말문이 막힌 그들을 가까이 오라고 요청합니다. 통상적으로 인간 관계에서 공간의 근접성과 심리적 친밀감은 비례합니다.

불편한 사람과는 심리적-물리적 공간의 간격이 큼니다. 더구나 대제국의 절대 권력자와 자그마한 가나안 지역에서 온 사람들과의 신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먼저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형들을 향해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창45:5)’고 안심시킵니다. 요셉은 이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신앙의 시선으로 반응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신앙을 3단계로 살펴 보겠습니다.

■ 수용의 신앙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 45:4)

요셉은 자신이 겪은 억울한 고난과 시련을 인간적인 원망이나 분노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려는 성숙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형들이 자신을 시기하여 죽이려 하다가 결국 애굽에 종으로 팔아넘긴 그 끔찍한 사건은 분명 인간적으로 보면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악한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들추거나 책임을 묻기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일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억울한 피해자’로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먼저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 수용합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인식합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가뭄과 기근 속에서 자신의 가족과 많은 백성들을 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모든 과정을 되돌아보며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수용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낙관적 사고나 긍정적인 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깊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신앙은 고난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수용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삶에도 요셉처럼 예상치 못한 시련, 억울함,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는데도 오해를 받고, 타인의 실수로 피해를 입거나, 현실이 자꾸만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심을 신뢰하는 수용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어려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파송하시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자리이며, 억울함은 무너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 통찰의 신앙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창 45:7)

요셉은 자신의 고난과 억울함을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는 통찰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보고, 자신의 삶을 ‘파송’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여기서 ‘보내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이동이나 방출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목적 있는 파송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의 도구로 선택하시고, 의도적으로 애굽에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큰 구원”은 애굽에서의 식량 공급을 넘어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과 언약의 계보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적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여는 도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자 ‘미래 세대까지 책임지시는 분’ 이심을 분명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통찰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기대했던 것이 사라지고, 고통 가운데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파송’으로 해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자리가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파송의 자리’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통찰의 신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

| 생명의 말씀

며, 고난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듣게 합니다.

■ 반응의 신앙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 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 45:8)

요셉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거듭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자리와 성취는 전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는 ‘반응의 신앙’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정 전반을 좌우하는 실세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는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왕의 최측근 조언자,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온 집의 주’와 ‘애굽 온 땅의 통치자’라는 지위와 자리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도자, 관리자, 구원자적 존재로 파송하셨음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해석학적 신앙의 정수입니다.

사람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보는 믿음, 고난의 기억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깊이 신뢰하는 태도,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를 해석하는 시선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반응하는 요셉의 신앙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반응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위치와 환경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송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삶을 움직이신다”는 믿음으로

지금 우리의 자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순종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우리가

만나는 이 사람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임을 믿고 사명을 발견하는 ‘반응의 신앙’을 성숙시키시기 바랍니다.

■ 파송의 자리에서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저자로 유명한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 가족을 모두 잃었고, 극한의 환경에서 생존한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생을 포기했으나, 그는 자신이 겪은 고난을 파괴나 불행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의미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 고난의 경험을 통해 누군가의 삶을 일으켜야 한다는 사명이 내게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신, 억울함, 감옥살이 등 고난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파송으로 해석했습니다. 둘은 공통적으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질문에서 멈추지 않고, “이 일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나아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와 상황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파송지입니다.

수용의 신앙으로 지금의 현실을 낙심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고,

통찰의 신앙으로 고난 너머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하고,
반응의 신앙으로 그 자리에서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게 반응합니다. 



글 | 한진구 목사

무엇이 다른가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안식교는 한국에 정착한 지 100년이 넘어가며, 출판·교육·복지·의료·식품 사업 등 우리 사회에 완전히 자리 잡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업으로는 삼육식품이 있고, 전국에는 학교법인 삼육학원으로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삼육의 뜻은 ‘체육’, ‘지육’, ‘덕육’을 말하는데, ‘몸’, ‘정신’,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1. 안식교는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19세기 초부터 임박한 종말에 대한 분위기가 미국과 유럽을 감싸기 시작했을 때, 다양한 종말 운동을 이끄는 사람 중에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뉴욕의 침례교 평신도였던 밀러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성경을 연구한 후, 1843년 8월 21일에 예수가 재림하여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날짜에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1844년 10월 22일로 날짜를 수정하여 발표했지만, 또다시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엘렌 화이트’는 밀러가 예언했던 1844년은 재림의 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간 날이라고 해석하여 가르칩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이 땅에서는 몰랐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성소에 들어간 예수는 이 땅에 재림하는 날까지 성도의 행위를 조사한다는 안식교의 ‘조사 심판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재림하여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까지 완전히 회개와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주일은 태양 승배의 날이기 때문에 십계명

에 따라 다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 재림과 안식일을 내세우며 1863년에 그녀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를 조직합니다. 당시 안식교의 신자는 약 3,500명이었습니다. 북미 지역에 국한되어 활동하던 안식교는 1874년 앤드루스를 스위스에 첫 해외 선교사로 파송하며 해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안식교는 계속 성장하여 현재 신도가 전 세계에 약 1천 4백만명이라고 밝힙니다.

2. 이들의 교리는 무엇인가요?

1) 조사심판론 : 1844년 10월 22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간 날이며, 이때부터 예수는 이 땅에 재림하는 날까지 성도의 행위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2) 배타적인 교회론, 율법주의 구원론 : 안식교는 마지막 때에 구원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들만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라며 요한계시록 14장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3) 지옥 부정 : 안식교는 불신자의 영혼은 완전히 멸절된다는 영혼멸절설을 주장해 지옥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3. 이러한 주장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분별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성도들의 행위를 조사하는 검사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또한 본인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배타적 교회론’, 그리고 ‘지옥 부정’ 등은 기독교와 너무나 다른 구원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누며 살겠습니다



글 | 김바트르 성도

저는 몽골에서 온 김바트르입니다. 영은교회는 2025년 봄부터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은교회에서 훈련하고 있는 전도폭발 훈련에 관심이 있었고, 그 훈련을 받고 싶었습니다. 물론 영은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값진 시간입니다. 제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사역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1990년 몽골에서 처음 하나님을 영접 하였습니다. 당시 미국인과 한국인 선교사 두 분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말씀을 듣고 배우며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몽골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2004년 유학생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온 후 저는 지방의 한 대학에서 관광학과를 수료한 후 다시 신학을 공부하기위해 지금은 경기도의 용인 온석 대학원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교회(신도림 갈릴리교회 내)에서 몽골 목사님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몽골교회는 몽골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저는 저의 사역에 도움이 되며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도 작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많은 몽골인들이 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하려 합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신앙생활에 관한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전도폭발 훈련은 제 사역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래 전, 몽골에서 두 선교사를 만나 믿음을 갖게 되었으나, 제가 목회자의

꿈을 갖게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제게 그 사명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제게 주어진 그 길에 열심을 다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이라 믿습니다. 한국에서 신학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친구로 만나 결혼한 아내(수정)와 세 아들과 한국에서의 생활이 행복합니다. 아내는 한국에 와서 대학에서 세무학을 공부했고 지금은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큰 아들은 현재 고려대학교에 재학중이고 두 아들도 학업에 충실하고 있으니 모든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20년 전 한국에 왔을 때 지금까지 한국에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또 목회자가 되기 위해 한국에서 공부를 하며 하나님을 향해 꿈을 펼치며 살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제가 두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됨이 은혜입니다.

저는 앞으로 사역자로 이 땅에 온 많은 이국(異國)의 젊은이들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영은교회에 출석하는 지금 행복합니다. 교회교육에 대해, 신앙과 말씀, 모든 것이 제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목사님들과 교우들의 제게 주시는 마음이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고 사역에 힘쓰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차별없이 사랑하심을 배웠기에 저도 그런 사랑 나누며 살겠습니다.



신앙의 유산: 한영기 은퇴권사

삶의 전부가 된 영은교회



한영기 은퇴권사

한영기 은퇴권사님은 영은교회 창립교인 58명 중 한 분이다. 1937년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금곡리에서 태어난 권사님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것은 15살 때다. 우연히 길에서 만난 전도사님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됐다. 당시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없어서 가정집에서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드렸다. 8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권사님은 불교 집안에서 자랐다. 권사님 혼자 다니게 된 교회였지만 주일이면 빠지지 않고 교회에 가 예배드렸다.

1년 후 권사님은 일자리를 찾아 혼자 서울에 오게 됐다. 권사님이 정착한 곳은 영등포였고, 영은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대한모방에 취직했다. 당시 대한모방에 다니던 김찬규 장로(현재 영은교회 은퇴장로)의 소개로 사촌 동생인 김응규 집사와 1956년 봄에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권사님은 3남 1녀(완수, 성수, 정애, 형수)의 자녀를 두셨고, 2007년에 남편 김응규 집사를 먼저 하나님 곁으로 보냈다.

■ 창립교인이 되다

한영기 권사님이 영은교회와 인연을 맺은 것은 김찬규 장로의 공이 크다. 결혼 후 한 권사님은 김찬규 장로를 따라 당일교회(당시 새마음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남편 김응규 집사는 어머니가 권사였던 신앙인이었다. 한때는 신학 공부를 결심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해병대에 입대하면서 김 집사는 신학 공부에 대한 꿈을 접게 됐다. 결혼 후 권사님은 당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 출신의

성도들이 기존 교인들과 갈등을 겪으며 당일교회를 떠나게 됐다. 그래서 간 곳이 양남교회였다. 그 교회에서도 피난민 출신의 성도들은 기존 교인에게 환영받지 못했고, 결국 또 교회를 나와야 했다. 1960년 4월 24일, 양남교회에서 나온 58명의 성도들은 이창호 장로(당시 집사) 댁에 모여 백용중 목사의 인도로 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다. ‘영중교회’라는 이름으로 영은교회가 시작됐다. 같은 해 교회명은 영신교회로 개칭됐고, 1년 후인 1961년에 영은교회로 이름이 확정됐다.



한영기 권사 임직예배(앞줄 오른쪽)

지금의 교회 자리에 예배당을 건축할 때까지 영은교회 성도들은 여기저기 다니며 예배를 드려야 했다. 영도중학교와 동아염직에서도 예배드렸다. 1960년 12월에 양평동 3가 8-3번지 땅을 매입해 빨간 벽돌의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다. 한 권사님은 이듬해 7월에 성전이 완공되어 입당예배를 드릴 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다고 회고한다. 이리저리 남의 교회를 전전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영은교회 예배당이 세워진 것이 권사님에게는 가장 보람된 추억이 되었다.

■ 교회식당에서 봉사하다

창립 교인이 된 한영기 권사님은 1996년 5월 12일에 권사에 취임했다. 집사 때부터 줄곧 봉사부원으로서 교회식당에서 봉사를 해 오다가 몇 년간 봉사부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교회를 위해 크게 봉사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권사님은 65년 영은교회 신앙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식당 봉사였다고 말한다. 그 옛날 권사님이 식당에서 봉사할 때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커다란 가마솥에 밥을 짓곤 했다. 여름 수련회 때마다 수련회 장소에 따라 가서 음식을 했다. 어느 해인가, 충청도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비가 많이 와서 비를 맞으며 밥을 해주었다. 권사님은 그때 눈물 흘리며 장작에 불을 지펴 밥을 짓던 일을 잊지 못한다. 봉사부 모두가 즐겁고 재밌게 일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권사님은 30살부터 시작한 식당 봉사를 70살에 권사 은퇴를 하면서 마쳤다. 영은교회에서 40년간의 ‘식당 봉사’가 권사님에게는 소중한 신앙의 열매가 되었다.



식당봉사 : 한영기, 김춘화, 김복주 권사

한 권사님은 이용남 목사님(제4대 담임목사)이 권사님 집을 심방 한 일을 잊지 못한다. 그 시절은 담임목사님이 전교인을 심방하던 때였다. 종일 심방을 하던 목사님은 맨 마지막 심방 집으로 목동에 있는 권사님 집을 밤 10시에 찾아오셨다. 권사님은 그날의 감동을 지금도 기억한다.

■ 엄마는 한결같은 분입니다

“영은교회는 뿌리가 깊은 교회인 만큼 단단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노력하고 봉사하며 믿음으로 잘 성장해 왔듯이 미래에도 더 그러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권사님에게는 영은교회가 평생에 다닌 교회 중 두 번째 교회다. 16살 때 고향에서 서울로 와 다녔던 영은교회가 이제 88살 권사님에게는 삶의 전부가 되었다. 권사님의 간절한 소망은 “두 발로 걸어 다닐 때까지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딸 김정애 집사는 어머니를 이렇게 소개한다. “엄마는 한결같은 분입니다. 자녀에게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회 직분은 천직이라고 생각하며 맡겨진 일은 무조건 하셨습니다. 엄마의 이런 신앙을 본받고 싶습니다.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랑에 바탕을 둔 엄마의 신앙을 따르고 싶습니다.” 김 집사는 형제간에 다툼이 없는 것도 엄마의 기도 덕분이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영기 권사님이 즐겨 부르는 찬송이다. 이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권사님의 삶은 영은교회와 함께한 은혜의 시간이었다. 동행

〈인터뷰&글 : 김명희 기자〉

영은교회, 여름 커피나눔



글 | 신요한 목사



유난히도 덥고 길었던 2025년의 여름, 영은교회가 무더위로 힘들어하는 직장인들과 시민들을 위해 새롭게 이번 여름에 주변의 직장 근처의 카페에서 커피 나눔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4개 지역 카페 브링미커피(에이스하이테크 시티3), 더착한커피(우림빌딩), 메가커피(월드메르디앙), 커피사피엔스(양평자이비즈타워)와 협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여름 중에서도 가장 무더위가 심한 7월 말(7월 29일(화), 31일(목))과 8월 초(8월 5일(화), 7일(목)) 2주에 걸쳐서 총 4회 진행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카페씩 교회 주변의 직장인들과 주민들에게 약 500여 잔의 시원한 커피와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커피나눔 행사는 지난 2021년부터 5년 동안 계속 진행되었고, 주변의 카페들에게 도움을 주고 직장인과 시민들에게도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부활절과 성탄절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되었지만, 이번 2025년도에는 <COLOR, 색을 입히다>라는 주제와 함께 주변에 예수님의 사랑의 색을 입히고 나누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사랑의 커피를 전달하는 행사를 추가로 가졌습니다.

직장인들과 주변 시민들의 반응은 너무 좋았고, 함께한 카페 사장님들도 매우 만족스러워하시고 감사를 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 영은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기쁨과 사랑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의 색을 입힐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역사 그랜드투어: 신앙의 유산 길을 따라 걸으며 예수를 찾다

글 | 김명희 권사(교육문화부)



안동 하회교회 방문

교육문화부 주관 <2025년 한국교회역사 그랜드투어>가 8월 22일~23일까지 대구, 안동, 영천에서 있었다. 교육문화부 정성훈 목사님과 부장 송현을 장로님을 포함해 총 85명이 버스 두 대에 나눠타고 한국교회의 역사현장을 달렸다. 영천 자천교회 담임목사이자 영남신대 겸임교수인 손산문 목사님의 가이드로 대구와 안동, 영천 지역의 교회 역사현장들을 세심히 둘러봤다.

그랜드투어는 10명씩 8개 조로 편성해 진행됐다. 8월 22일(금) 첫째날은 대구제일교회 역사관과 대구 YMCA, 이상화 & 고상돈 고택, 동산병원 일대 등을 방문했다. 저녁에는 127년 된 영천 자천교회 예배당에서 손산문 목사님의 자천교회 건립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송현을 장로님의 기도와 정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다. 120년 된 예배당에서 영은의 성도들은 그때처럼 남녀 구분해 앉아서 선조들의 신앙을 기억하며 예배드렸다. 23일(토) 둘째 날에는 청송 화목교회 엄주선 강도사 순교테마공원과 안동선교부 묘역, 안동 광성교회, 하회교회 등을 탐방했다.

손산문 목사님은 “기독교 역사 투어는 예수를 따라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길을 따라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다음의 세대에게 전해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에도 이런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영은의 성도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예수를 만나고 있었다. **동행**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값진 투어

글 | 이상의 은퇴장로

이번 <한국교회역사 그랜드투어>는 가이드 손산문 목사님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

었던 값진 투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에 미개한 어두운 이 땅에 복음 전파를 위해 순교하시며, 오직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으로 유형 및 무형의 소중한 신앙의 자산을 남기신 분들의 고택과 사저, 유물과 유품들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대구제일교회

대구제일교회에 세워진 발자취는 민족시인이자 만세운동(3.1운동)가이신 이상화 선생의 고택에 소장된 유물 및 유품과 발전상, 맞은편의 서상돈님의 고택 전시물을 보며 애국심을 보여준 귀한 분이었음을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또한, 영천 자천교회가 있기까지 권현중 장로님의 헌신과 믿음은 자기 재산을 다 바쳐 자천교회를 세우시고 별세하신 후 예수 믿어 망했다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자녀의 헌신으로 더욱 자천교회가 발전하고 후손들이 별과 같이 빛나는 명문 가문이 되었다는 사연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한 알의 귀한 밀이 되신 분들을 본받는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순교 위에 세워진 기독교 역사는 길이 보존되어 후손들에게 잘 계승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재확인과 영적 성숙의 기회가 된 그랜드투어

글 | 이도수 장로



안동 하회교회

이번 한국교회역사 그랜드투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운 일정이었습니다. 85명의 참석자들은 대구제일교회 및 영천 자천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복음의 역사적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 초기 선교의 의미와 헌신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선교사들과 조사(助事)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교회가 없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명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였으며,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석자 모두 복음의 역사를 기억하며 앞으로의 사명을 다짐하였습니다.

이번 일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신앙의 재확인과 영적 성숙의 기회였습니다. 

주님의 품에 머물다 온 것 같았다

글 | 윤정림 집사

장로님, 1박 2일이 마치 3박 4일 같았어요. 왜요, 지루했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내용이 알차서요? 네!

서울로 올라오는 휴게소에서 저녁을 먹으며 송현을 장로님과 나눈 대화다. 이번 한국교회역사 그랜드투어에서는 발 닿는 곳곳마다 넘치도록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이를 내내 주님의 품 안에서 머물다 온 것 같았다.

버스는 일정표대로 대구-영천-안동 순서로 이동했고, 교회역사탐방 1부터 4코스까지 자천교회 손산문 목사님께서 가이드를 해 주셨다. 첫날 대구에 도착해서 첫 번째 장소인 대구제일교회 역사관으로 향했다. 역사관을 둘러본 다음 항일투쟁과 함께한 기독교에 관하여 손 목사님의 강의를 이어졌다. 이후 대구 YMCA회관에 들어갔는데 “십자가를 등에 지고, 태극기를 손에 들고” 문구를 보는 순간 그들의 외침이 내 가슴에 쿵 박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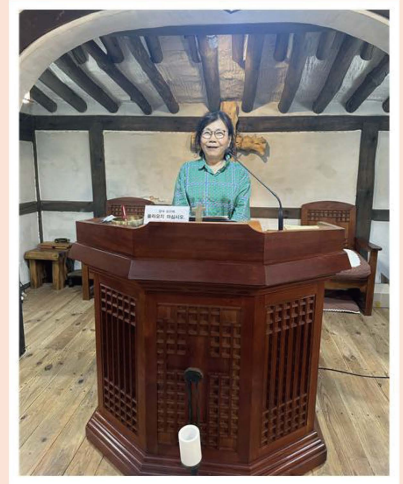
영천에 도착해서 두 번째 장소인 자천교회를 마주한 순간 아! 감탄이 절로 나왔다. 한옥 마당이 있는 교회라니! 게다가 예배당은 남녀 좌석이 나뉘었고 칸막이로 막혀 있어서 서로의 좌석이 보이지 않았다. 한국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겹집’ 형태라 건축 양식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한다. 자천교회에 대한 손 목사님의 간증을 듣는 동안 그곳이 단지 기독교 역사뿐 아니라 세계적인 유산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튿날, 엄주선 강도사 순교 테마공원을 방문했다. 첫날은

일제시대 기독교인들이 산양으로 나라를 지키신 덕에 우리가 편히 교회에 다닐 수 있을 것을 깨달았던 반면,

둘째 날은 ‘내가 모르는 순교자가 정말 많구나. 앞으로도 부지런히 따라다

니며 배워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넓게 트인 공원에서 무더위와 땀별이 양산 숲을 만들었다. 버스는 마지막 장소인 안동으로 달렸다. 광성교회와 하회교회를 방문했다. 석조건물인 광성교회 내부엔 기둥이 없이 양쪽 벽돌이 건물을 받쳐 주고 있었다.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이원영 목사가 건립하셨다고 한다. 곧이어 하회교회로 갔는데 교회가 유교의 본고장인 하회마을 안에 세워진 것만으로도 귀하고 소중해 보였다. 작년이었으면 많이 아파서 못 갔을 텐데 올해에 이렇게 멋진 프로그램이 생겨서 개인적으로 특별한 축복을 받은 듯했다. 그리고 우리 8조 멤버들과의 소중한 만남은 나에게 제대로 된 코이노니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교회역사 그랜드투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가고 싶을 만큼 뜻깊은 시간이었다. 



자천교회 강대상에서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

- 7/30(수)~8/1(금)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



글 | 장시우 어린이

저는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했습니다. 수영도 하고 집회에도 참석했으며, 야식도 먹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집회와 수영 시간이었습니다.

집회 시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동안 잘못했던 일을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영 시간에는 지난 5년 동안 배운 수영 실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시간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성경학교에 다녀봤지만, 이번만큼 재미있고 알찬 성경학교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성경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 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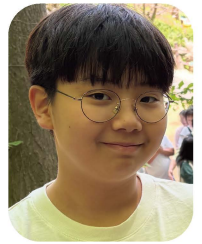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잘못했던 일을 회개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제게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은, 특별한 성경학교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중요성

— 7/27(주)~7/30(수) 소년부 여름성경학교 —



글 | 송지후 어린이

이번에 나는 'FLOW:ER'라는 주제로 3박 4일 동안 파주 염광수련원으로 소년부 여름성경학교를 다녀왔다. 수련회에 가기 전에는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주일에 소년부실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향한 자 다윗'이라는 말씀 주제로 여는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 장소로 출발했다.

도착해서 짐을 풀고 O.T와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에 조 게임과 레크레이션을 하며 출발 전에 했던 걱정이 사라졌고 오히려 수련회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

둘째날과 셋째날 아침은 성경공부와 Q.T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조금 졸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 같아 좋았다. 하나님을 겉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물놀이 시간에는 친구들이랑 물총 싸움과 물놀이를 하며 신나게 놀았다. 중간중간에 수박이나 삶은 감자 같은 간식들은 선생님들이 챙겨 주셔서 좋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셋째날 물놀이 후에는 '성경적 가치관'에 대한 특강도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그 이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배웠는데 다윗에게는 갑옷과 투구들이 필요하지 않았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가 있었기 때문에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셨다. 그리고 직접 전신갑주를 만들어보는 시간도 있었는데 친구들과 다시 한번 하나되는 시간이었다.

집회시간은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어서 가슴이 뛰었다. 워십으로 찬양하는 시간은 너무 신이 났고 말씀도 재미있었다. 전도사님께서 다시 한 번 다윗의 이야기를 전해 주셨다. 다윗은 이새의 다른 아들과 비교했을 때 작고 약해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셨고 다윗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다윗은 전신갑주를 입고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었다.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함께한다면 그 무엇도 못 해낼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용기가 생겼다.

기도시간에는 친구들과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했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다시 한 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깊게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된다는 걸 다시한 번 느꼈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 속에서도 나를 방해하는 마귀들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 맞서 싸워 나가는 나 자신이 되어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귀한 수련회 시간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열심히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과 함께 해 준 친구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글 | 오한결 (중등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 7/27(주)~7/30(수) 중등부 여름수련회 —



매번 참여하던 수련회를 이번에는 여행 때문에 망설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권유로 결국 참여하게 되었고, 그 선택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가기 전, 저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였고 기도도 잘 하지 않았으며, 주일에 교회만 나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동행하고 계시며, 변함없이 저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삶으로 예배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어떤 고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기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되면서, 제 안에 있던 불필요한 걱정들이 사라지고 저 자신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제 말씀인 에스겔 16장 6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던 저를 구원해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고, 그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며, 피투성이라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또 저녁 집회 시간에 ‘주님 사랑해요’와 ‘임하소서’를 부르며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보다 어린 동생들, 언니 오빠들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던 건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인도해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찬양팀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삶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 8/3(주)~8/6(수) 고등부 여름수련회 -



글 | 곽영규 학생



〈Changed Change!〉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고등부 여름수련회는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학생회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안고 준비한 두 번의 수련회를 모두 끝마치고 나니 시원섭섭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집회 시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고등부를 보며 수련회를 위해 준비해 온 나날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떻게 하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 보니 항상 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었던 것 같아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집회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습니다. 매년 수련회 참석 인원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친구들을 보

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보였고, 특히 뒤쪽에서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는 주님을 찾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특히 다 같이 모여 중보하는 시간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니 신앙의 동역자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3박 4일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간 후에도, 우리 고등부는 각자 매일 SNS에 기도문을 공유하거나 수련회에서의 묵상을 나누는 등 변화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을 수련회의 감동으로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 어떻게 하나님 자녀의 모습인지 이제는 어렵פות이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변화의 멈춤을 변질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동행**



여름찬양캠프 - 아동부찬양대 -



글 | 양승아 (소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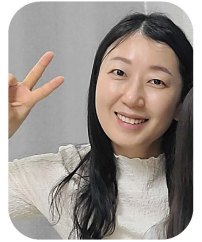
나는 이번에 조장으로 여름찬양캠프에 참여했다. 처음엔 내가 조장이 돼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지만 아이들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격려해 줘서 부담감 없이 즐길 수 있었다. 그리고 이번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춤을 추고 잘 한 팀에게는 과자를 나누어 주는 게임을 했는데 우리 팀은 “지으신대로”라는 찬양으로 춤을 추었다.

그리고 중간중간 열심히 춤을 맞추어 보기도 했다. 그 결과 우리는 2등을 했다. 조금은 아쉬웠지만 너무나도 뿌듯한 결과였다. 또 우리는 각종 다른 게임들을 했는데 아이들이 싸우지도 않고 저도 웃어넘기고 격려해 주는 게 너무나도 보기 좋았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게임을 했기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태

였다. 그래서 많은 간식들도 먹었는데 간식으로는 시원하고 달달한 화채와 쫄쫄하고 바삭한 쿠키, 여름에 더울 땀 꼭 필요한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있었고 점심으로는 매콤한 떡볶이와 달달한 닭강정, 많은 야채와 맛있는게 들어있는 김밥이 있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우리는 힘을 되찾아 다시 각종 게임을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난 기도하며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으며 잘못을 되돌아볼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처음엔 조장으로서 걱정과 부담감이 컸지만 나중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어서 좋았다. 비록 마지막 찬양학교였지만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했다. 



전도 대상자와 함께한 가정심방 - 꿈자람부 어린이 가정 심방 : 복음 더하기! -



글 | 김아름 집사

꿈자람부에서 7월 한 달 동안 <복음전도학교>를 진행하며 전도대상자를 정하고 복음을 전한 뒤, 가정 심방 자리에 초대하는 시간을 계획하며 함께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복음전도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직접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어린이 4명리로 복음을 전하는 실습도 해보았고, 전도 대상자에게 전달할 간식도 정성껏 포장하며 전도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키워갔습니다.



복음의 전도는 주일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 딸 소담이는 평소에도 전도할 친구를 생각하며 스스로 기도했고, 어린이 4명리와 함께 전할 간식은 언제, 어떻게 건네주면 좋을지 고민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드디어, 가정 심방의 날! 전도 대상자(권다빈)가 감사하게 초대에 응해 주었고, 꿈자람부 전도사님과 부장님께서 심방을 와주셨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태어나서 처음인 다빈이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우리의 죄, 하나님의 용서, 십자가 사랑,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에 대하여 전도사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 해주셨습니다. 소담이가 평소에 좋아하는 “온땅이여”로 신나게 찬양하고,

기쁘게 예배하였습니다. 소담이와 다빈이를 위한 축복기도문을 뽑아서 프린트해주셨는데 모두가 합심으로 축복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는 시간은 큰 위로와 힘을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다빈이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지 물어보았을 때, 다빈이는 망설임 없이 “네! 예수님을 믿겠어요!” 대답했습니다.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이 모든 시간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가 차올랐고, 앞으로도 다빈이를 위해 계속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의 다짐이 생겼습니다. 참 은혜롭고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질문 뽑기통에서 질문을 하나씩 뽑아 친구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질문 뽑기 후, 꿈자람부에서 준비하신 선물도 받았습시다.

심방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인터뷰 시간도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 것 같아요?”라는 질문에 다빈이가 “예수님은 친절하신 분 같아요”, “좋은 분 같아요”라고 고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망설임 없이 “예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마무리해 주었는데, 그 짧은 한 마디 안에 담긴 순수한 믿음이 어른인 저에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꿈자람부 여름사역 “어린이 가정심방 : 복음 더하기!”에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었던 것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성실히 준비하고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꿈자람부 전도사님과 부장 선생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함께 하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다”

— 청년1부 수련회 —



글 | 유선우 (청년1부)



(마6:10)”라는 주제로 8월 21일(목)부터 23일(토)까지 2박 3일 동안 성도교회 철원수양관에서 진행됐다. 총 76명의 청년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노라 고백하며 결단했다.

수련회는 오리엔테이션과 레크리에이션, 힐링 찬양 콘서트로 시작되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렸고, 이어진 경배와 찬양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다. 청년들이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셨음을 느낄 수 있었다.

첫 집회의 말씀인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돌아보며 회개와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큐티와 나눔으로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다. 이후 임원들이 준비한 코너학습과 물놀이 프로그램이 이어져 모든 청년이 함께 즐기며 하나 되는 시간을 보냈다. 저녁 집회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입다”라는 주제로 골로새서 3장 말씀이 선포되고, 청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비전을 발견하고, 교회를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공동체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경험했다. 친한 청년들뿐만 아니라 처음 만난이들과도 사랑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청년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체험할 수 있었다.

마지막 날에는 래프팅을 즐기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모든 과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며 맺어질 열매를 기대한다. 

“빛을 닮아서” - 청년2부 수련회 -



글 | 이진성 (청년2부)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빛을 닮아서”였다. 주제를 접하며 ‘빛을 닮는 삶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생겼는데,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빛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음을 깨달았다. 내가 속한 자리에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굳은 결단이 필요하고, 그 결단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과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수련회에서도 많은 분의 섬김을 통해 빛 된 삶을 엿볼 수 있었다. 3일 동안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신 목사님, 수련회를 준비한 청년부 임원들과 각 조의 조장들, 청년부를 위해 애써주시는 부장 집사님과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장로

님들, 그리고 오가는 길 안전하게 운전으로 섬겨주신 집사님까지 모든 분의 빛 된 헌신이 있었기에 이번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돌아올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2박 3일 동안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나를 포함한 영은교회 모든 청년이 이번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때로는 우리의 빛이 희미해질 때가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빛 되신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청년2부(27세~34세) 여름수련회는 “빛을 닮아서(마5:14)”란 주제로 8월 14일(목)부터 16일(토)까지 2박 3일간 포천 K청소년 수련원에서 진행됐다. 총 95명의 청년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하신 것과 예수의 빛 되심을 닮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됐다.

오이코스 새신자 과정을 수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청년 2부 여름수련회에 다녀오게 되었다. 사실 교회에 아직 잘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련회를 가도 괜찮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기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청하게 되었다.

제3회 영은디아스포라, 영은설악센터에서 열려



영은디아스포라 모임 후 영은설악센터 뜰에서

2025년 영은디아스포라(이하, 영디포) 모임이 8월 18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영은설악센터에서 있었다. 영은교회 출신 목회자 및 신학자로 구성된 영디포는 2020년 영은교회 60주년 기념행사 때 모임을 시작했고, 작년에 이어 올해로 세 번째다. 이날 영디포 모임에는 영디포 회원 및 배우자, 영은교회 차재협 장로와 최윤호 장로를 포함해 15명이 참석했다.

특별히 이번 모임은 영은설악센터(경기도 가평군)에서 진행됐다. 영은설악센터는 2024년 10월 27일에 헌당예식을 한 후 교회의 영성과 신앙훈련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영디포 회원들은 이날 모임에 앞서 최윤호 장로의 안내로 설악센터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대식으로 잘 지어진 아름다운 성전

과 기도실, 다양한 시설 등을 돌아보며 모두가 감탄했다.

이후 예배실에서 영디포 회장인 김명실 목사의 인도로 예배를 드렸다. 차재협 장로의 기도예 이어 이사야 11장 9절을 중심으로 김성준 목사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란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예배 후 김규리 목사의 “애도에 대한 이해와 기독교적 돌봄”에 대한 목회상담학 특강이 있었다. 최종목 목사는 공주원로원교회와 대전 한소망교회에서 체험한 “성실하고 충직한 담임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강의 후 자리를 옮겨 금강막국수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였고, 근처 가평양떼목장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향후 영디포 모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영은교회를 대표해 참석한 차재협 장로에게 영디포가 준비한 영은교회 청년부 신학생 5명에게 지급하는 도서비를 전달했다. 다음 영디포 모임은 2026년 여름에 김성천 목사가 담임하는 대전 인동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글 : 김명희 기자〉

유스비전 30기 <알록달록>의 유럽비전 여행기



로마장로교회 목사님(중앙)과 유스비전(좌로, 류시은, 박지훈, 이채연, 윤지섭, 홍희선, 조강림, 황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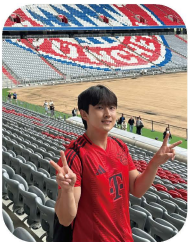
유스비전 30기 알록달록팀이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36일의 유럽비전여행 일정을 마치고 안전하게 귀국했습니다.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스페인 등 7개국을 돌며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사람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영은교회 청년들로 구성된 7명의 유스비전 멤버는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금으로 청년의 때에 주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키우는 여행을 했습니다. 지면을 통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유스비전 7명의 소감입니다.

유스비전 동안 깊이 깨달은 것은, 주님의 시선을 보고자 하면 음성을 듣고 자 하면 언제나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자연 속에서는 주님의 크심을, 다양한 문화 속에서는 시간과 역사 위에 살아 계신 주님을, 생애 속에서는 크신 사랑으로 만물을 돌보시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세심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홍희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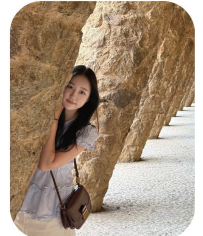
팀장 : 홍희선



부팀장 : 윤지섭

팀원들과의 큐티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하루는 어떻게?’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지내온 것 같습니다. 함께했던 7명의 알록달록 팀원들이 서로를 더욱더 배려하고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를 이뤄가는 은혜의 시간과 여정이었습니다. 7개 국가의 풍경들을 감상하며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더 크고 위대함을 감탄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홍희선**

이번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은혜의 시간이었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다시 붙잡게 되었습니다. 더 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한다는 부르심이 마음에 각인되었으며, 이 모든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느꼈습니다. **(동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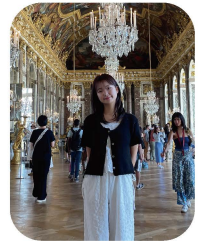
총무 : 조강림



서기 : 박지훈

유럽에서의 모든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삶을 살아내길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항상 함께해 주신다고 하였고, 누구보다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많은 용기와 힘이 되었습니다. **(동행)**

36일간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과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며, 오직 겸손과 감사로 주 앞에 서야 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번 유스비전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시고 다시 세우시는 은혜의 시간이었으며 나의 유일한 기쁨 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동행)**



회계 : 류사은



부회계 : 황주영

저는 이번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과 놀라우심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장엄한 자연과 수많은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제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그분의 손길이 분명히 스며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으며 완전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의 여행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행)**

유럽에서 모두가 '주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말을 거의 매일 했는데 비록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도 있었겠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유럽 땅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록달록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7명을 불러주심으로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가 생겼다는 것은 무엇보다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동행)**



홍보 : 이채연

교회언어 바로잡기



글 | 최광주 목사

9월 새 학기 힘차게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잘못된 언어를 바로잡고 오해와 시험과 갈등이 아닌 이해와 격려와 연합으로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다음의 몇 가지 예를 통해 교회 생활과 영적 성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서두 :
하나님을 호칭
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소원을 아뢰는 것이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본받아 기도의 서두는 하나님을 호칭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등)

**기도의 서두 :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X) →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O)**

기도의 서두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호칭하여 시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끝나는 것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대상을 생각해볼 때 기도의 서두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호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을
‘당신’으로 지칭하
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는 2인칭이 됩니다. 물론 하오체에 해당하는 2인칭 대명사 ‘당신’은 존댓말이기는 하지만 그 높임의 정도는 아주 낮습니다. 그러므로 지존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당신’으로 지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하
옵소서’ 보다
더 공손한 표
현은 ‘용서하
여 주옵소서’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옵소서’라는 말은 정중한 부탁이나 기원을 나타내는 존칭 어미이므로 ‘용서하옵소서’라고 해도 되지만 이 보다 더 공손한 표현인 ‘용서하여 주옵소서’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용납’과 ‘용서’는
다른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의 죄를 용납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납’해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출처-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기독교용어연구위원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글 | 이숙경 기자

내가 고등학교 시절엔, 쏘나타 차량에서 S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쏘나타들은 대부분 쏘나타(SONATA)가 아닌 오나타(ONATA)였다. 쏘나타의 S자를 떼어가 간직하면 서울대에 갈 수 있다는 기이한 미신이 돌았던 탓이다. 내 친구 중에도 S자를 떼어내어 가지고 다니던 이가 있었다. (친구의 부모님 차종은 쏘나타가 아니었는데도……!) 결국 그 친구가 서울대에 갔을까? 못 갔다. 쏘나타에서 S를 떼어내 서울대에 갈 수 있었으면, 온 세상 사람들이 땡빔을 내서라도 쏘나타 한 대씩 뽑지 않았을까.

사실 S를 가지고 다니던 친구도 서울대를 가지 못했더라도 크게 실망하지는 않았다. 당연하다. 미신과 징크스에 쉽게 혹하긴 해도,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진지하게 믿는 이는 많지 않다. 밀저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해보는 것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 받은 혈루병 걸린 여인(마 9:20~22)은, 어린 내게는 남의 차에서 S자를 몰래 떼어내는 사람처럼 보였다. 수많은 무리에 끼어들어 예수님의 옷자락 슬쩍 만지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었을까.

솔직히 나라도 그 유명한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 옷자락 한 번쯤은 만져봤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밀저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얼마든지 시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어른이 되고 해당 일화를 다시 읽어볼 땐 전혀 다른 문장이 내 눈에 들어왔다.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것을 알았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보러 갔을 때도 ‘무리 가운데 끼어(막 5:27)’ 있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몰려들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근심 있는 이가 여자뿐이었을까? 예수님의 이적을 빌려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은 이가 또 없었을까? 밀저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건드리든, 머리카락을 건드리든 해봤을 이가 과연 여자만이었을까?

그럼에도 여자는, 오직 혈루증 있던 여자만은 치유받았다.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과 여자는 무엇이 달랐을까.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나으면 좋고, 아니어도 그만이라는 심정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 성경에 기록된 이들 - 지붕을 뜯어 병자를 예수님께 내린 자도, 죽어가는 딸에게 예수님이 손만 얹어도 살겠다고 간청한 자도 - 그들이 바라던 것을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흔들림 없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나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본다. 혹여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땡잡은 거고, 아니면 말고’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쏘나타에서 S자를 뜯어내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 교회를 섬기는 분들

원 로 목 사 허남기
 담 임 목 사 이승구
 부 목 사 최광주 이준희 이예리야 박대원 정성훈
 한진구 신요한 김민식 이찬양
 교 육 목 사 전수현
 전 도 사 장미애 김영락 김찬영
 교 육 전 도 사 나진희 박선민 황금성 황예찬 손예지
 정희수
 파 송 선 교 사 구용회 백현이
 협 동 목 사 소병찬 김규리

▶ 영은교회 예배시간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본 당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00	
	4부 오후 1:30	
오후예배	오후 3:30	본 당
수요일예배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	본 당
금요심야기도회	금요일 오후 8:30	본 당
영아부	주일 오전 11:00	1층 영아부실
유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2층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2층
유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소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꿈자람부	주일 오후 1:30	비전센터 2층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고등부	주일 오전 9: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청년부	주일 오후 1:3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 영은교회 찾아오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은교회

www.youngeun.or.kr

월간동행 e-mail : yemagazine@naver.com